

노년소설의 서사적 양상과 치유적 효능

- 김원일의 『슬픈 시간의 기억』을 중심으로 -

이숙*

|| 차례 ||

- I. 서론
- II. 노년소설의 서사적 양상
- III. 노년소설의 치유적 효능
- IV. 결론: 치유의 문학으로서 노년소설

【국문초록】

이 글은 김원일의 노년소설 『슬픈 시간의 기억』의 서사적 양상과 치유적 효능을 살펴본 글이다. 『슬픈 시간의 기억』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나를 안다, 「나는 두려워요, 「나는 존재하지 않았다」의 네 편으로 구성된 연작소설이다. 초점화자이자 주인공인 한여사, 초정택, 윤선생, 김씨는 인생의 노년기를 사설 양로원인 기로원에서 함께 생활하며 보내고 있다. 이들은 지나온 과거를 제각기 회억하며 죽음의 순간을 마주하고 있다.

이 작품은 서사구조와 담론의 측면에서 죽음과 삶에 대한 철학적 인식과 메타인지적 사유, 그리고 인간의 실존과 욕망을 보여준다. 노년 인물이 보여주는 고독, 우울, 분노, 슬픔 등의 정동은 치매(인지증), 뇌졸중 등의 병리증상으로 발현된다. 또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에 힘들어하면서도 자신이 처한 고통과 삶의 양태에 대해 끊임없이 사유하는 모습을 보인다. 주체와 타자의 실존적인 관점에서 보면 인물들은 연민과 혐오의 양가적 존재로서 재현된다.

*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노년소설의 문학적 치유성은 역사적 시간을 살아온 노년 인물이 보여주는 기억(기록)과 통찰의 힘에서 찾을 수 있다.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등 역사의 부침을 겪어온 이들에게 상처(트라우마) 치유를 위해 자경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더불어 다른 세대들 또한 다가올 미래인 노년의 삶에 공감하고 소통할 때 세대소통은 이뤄질 것이며 재난공동체의 사회적 고통도 치유될 수 있다.

작가 김원일은 『슬픈 시간의 기억』에서 타자화된 노년의 삶과, ‘억압된 기억의 불러내기’로서 서사를 재현해냈다. 피할 수 없는 질병과 죽음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팬데믹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노화(나이듦)과 질병, 죽음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한 때이며 이에 대한 새로운 지식도 필요한 시기다. 결국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 사유하게 만드는 노년소설은, 죽음과 삶, 소멸과 생성을 이야기하는 실존의 문학이며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시사점이 많은 ‘치유성’을 지닌 문학이다. 결론적으로 노년소설은 고통과 슬픔을 서사화하여 노년뿐만 아니라 인간 본유의 트라우마의 치유에 기여하는 문학이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김원일, 슬픈 시간의 기억, 노년소설, 치유(치유성), 기억, 시간, 포스트코로나 시대

1. 서론

팬데믹이라는 재난의 시대를 겪고 있는 인류는 레트로토피아(retrotopia)¹⁾에 놓여 있다. 다시 말해 인류는 코로나 이전의 시대를 그리워

1) 지그문트 바우만의 용어로 과거 즉 이전의 삶을 낭만화시켜서 그리워하고 이상화하는 것을 일컫는다. 간단하게 말하면 ‘과거의 향수’라고 할 수 있다. 바우만은 21세기 인류는 기술 발달로 표면적 발전을 이루었지만 그 이면에 피할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간파했다. 인간은 안전과 행복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기술의 발달은 역설적으로 불안을 낳기도 한다. 인간이 원했

하게 되었다. 주지하다시피 과거를 기억하고 그리워하는 것은 노년기에 이르거나 머물러 있는 이들의 특징적인 면모이며 회억(回憶)하는 인간에 대한 이야기는 노년소설의 주된 소재다.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돌아가서도 안 되는 현시점에서 코로나블루, 코로나레드로 운위되는 우울과 분노의 병리 증상은 시대적 증후군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병리 증상은 노년소설에서 두드러지는 심리 기제인 고독과 외로움, 우울과도 닮아있다. 또한 연민이나 혐오와 같이, 이 시대에 부상하는 타자에게 향하는 정동(affect)은 감염병(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²⁾의 확진자와 노인에게 공통으로 작용하는 것이기도 하다.

노년소설은 노년소설, 노년학적 소설, 노인성 소설로 불리면서 한국 현대문학사에서 1970년대부터 주목받기 시작하여 이재선, 김윤식 등에 의해 학문적으로 분석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본격적으로 연구되었으며 2000년대 이후 전홍남, 최명숙 등에 의해 활발하게 연구되면서 최근까지 비교적 연구자의 꾸준한 관심을 받아온 장르이지만 주로 ‘노년’과 ‘노년소설’의 일반적 담론에 주목한 연구가 많았다.

일반적으로 노년소설은 “시대적으로는 1970년대 산업화시대 이후의 현대사회에서 본격적으로 생겨난 새로운 소설 유형으로, 노년의 작가가 생산한 소설”³⁾로 정의되어 왔다. 여기서 나아가 이제는 노년소설에 대

던 미래의 공간은 찾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제 인간에게는 회상할 수 있는 과거의 공간만이 남아 있다.

2) 2019년 12월부터 전 세계로 확산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성 호흡기 질환으로 한국에서는 코로나19로 줄여 부르고 있다. 이에 세계보건기구(WHO)는 3월 11일 팬데믹(감염병 세계 유행)을 선언했다. 2021년 5월 현재, 백신은 개발되었으나 완벽한 치료제는 개발되지 않은 상태로 현 인류에게 최대의 위협이 되고 있는 질병이다. 이 글에서는 이하 ‘코로나19’로 줄여 지칭하기로 한다.

한 독자적이고 섬세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 글에서 주목하는 치유적 관점⁴⁾에서 문학 텍스트를 분석하고 그 효용과 가치를 논한 연구는 없지 않지만, 노년소설의 서사적 측면에 천착하여 그 치유성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문학 내외적 가치를 논한 연구는 드물다.⁵⁾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포스트코로나 시대 ‘노년소설’을 새롭게 정의하기 위해 ‘치유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문학의 치유적 효과에 주목하

- 3) 류종렬, 「한국 현대 노년소설 연구사」, 『한국문학논총』, 한국문학회, 2008, p.502. 이러한 정의로 외연을 넓힐 경우 다른 유형의 소설과의 차이점은 사라지며 개별적 특수성 즉 독자성이 묻힐 수 있다. 그간 노년소설에 대한 개념과 성격에 대해 선명한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전홍남은 문학 연구자들이 노년문학 혹은 노년소설의 갈래와 그 성격을 규정하기 모호한 측면과 더불어 노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부정의식과도 연관이 있다고 지적한다. 전홍남, 『한국 현대 노년소설 연구』, 집문당, 2011, pp.12-13 참조.
- 4) 이 글에서 주목하는 치유적 관점은 사실상 ‘문학치료(Literary Therapy)’적 관점 및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 이에 이 글에서 ‘작품서사’, ‘자기서사’와 같은 문학치료적 개념을 원용하기는 하지만, 문학치료 방법론에 입각한 본격적인 연구는 아니다. 한정적인 의미나 이론적인 측면에 입각한 연구보다는 보편적이고 넓은 의미에서 ‘치유성’을 논하는 것이 텍스트 분석에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문학치료와 관련하여 작품을 논하는 것은 추후의 과제로 삼아 보다 진전된 연구를하고자 한다.
- 5) 기존의 여타 노년소설 연구에서는 기억의 서사라는 측면에 우선적으로 주목하면서 서 죽음의식과 말년의식, 자아의식, 노인문제에 대해 집중한 경우가 많았으며, 『슬픈 시간의 기억』에 대해서는 역사라는 공적인 차원과 개인의 욕망 표출이라는 차원을 넘나들어 주목한 경우도 있었다. 『슬픈 시간의 기억』에 대해 주목할 만한 것으로는 백지연, 김미영, 이진희, 마혜정, 장미영, 이평정, 서정현, 김보민, 박찬효, 우은진, 김은정 등의 연구가 있다. 그간 김원일의 노년소설의 경우 박완서, 최일남, 한승원 등 대표적인 노년소설 작가들과 더불어 비교분석한 연구가 많았다. 특히 『슬픈 시간의 기억』은 『미망』(1981) 등과 함께 평자들에 의해 가장 주요하게 언급되는 노년소설 작품이며 서사적 양상은 자주 논구되었으나 치유적 효과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부족하다고 본다.

는 것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고통에 대한 면역력을 문학적으로 키우는 가능성을 겨누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는 작품은 김원일(1942-)의 노년소설 『슬픈 시간의 기억』이다.⁶⁾ 연작소설집인 『슬픈 시간의 기억』(2001)에 실린 작품들을 살펴면서 위드코로나 시대라고도 불리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노년소설의 서사적 효능과 그 문학적 가치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노년소설의 서사적 양상

1. 서사 구조와 담론의 층위: 죽음과 삶, 생성과 소멸의 서사

노년소설의 서사 구조는 노년의 작중인물 즉 노인이 겪는 사건이 중심이 된다. 『슬픈 시간의 기억』은 네 편의 연작이 독립된 주제를 형성하면서도 공통의 주제로 형성·수렴되는 구조다.⁷⁾ 김원일의 연작소설집인 『슬픈 시간의 기억』의 주요 서사는 노인요양원인 기로원에서 생활

6) 이 작품이 노년소설의 치유적 효능을 잘 발현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보다 더 섬세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는 첫째, 자아의식, 죽음의식, 말년(노년)의식 등의 의식적 측면뿐만 아니라 질병과 같은 육체적 측면이 고루 부각되어 있는 비교적 완결된 구도를 보여주는 작품이기 때문이다. 둘째, 노년소설의 서사적 특징을 한 인간의 일대기를 통해 시간적으로 분명하게 수렴하여 보여주고 있으며, 역사라는 개인적 차원의 기억뿐만 아니라 개인의 트라우마라는 사적인 차원의 기억, 욕망의 문제를 총체적으로 서사화하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인물들의 트라우마와 극복과 치유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발화하는 텍스트로 보이기 때문이다.

7) 김은정, 「질병의 의미를 통한 노년소설 연구 - 김원일의 『슬픈 시간의 기억』을 중심으로」, 『국제어문』 77, 국제어문학회, 2018, p.350 참조.

하는 네 명의 노인들의 삶에 대한 기억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은 각각의 단편 「나는 누구인가」, 「나는 나를 안다」, 「나는 두려워요」, 「나는 존재하지 않았다」에서 초점화자이자 주인공으로 등장하면서 제각각의 방식으로 다가오는 죽음을 맞이하며 기로원에 들어오기 전까지의 과거의 사건들을 회억한다. 따라서 과거의 중요한 사건들 내용이 이 소설의 이른바 ‘작품서사’⁸⁾라고 볼 수 있다. 한여사(한경자), 초정택(장터택), 윤선생(윤여은), 김씨(김중호)는 한택기로원에서 기거하는 노인들의 슬픈 죽음을 목격하면서 원하던 원하지 않든 자신들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다. 그들이 살아온 사연 즉 ‘자기서사’는 제각각이지만 죽음을 맞이하는 공간은 사설 양로원 기로원(耆老院)으로 동일하다.

먼저 「나는 누구인가」의 주인공인 한여사는 육체와 외양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인다. 그녀는 여느 사람과 다를 바 없는 범상한 생사관을 보여준다. 그녀에게 있어서 죽음은 영혼을 비롯한 모든 것이 없어지는 것이며 이런 죽음은 불변의 진리이므로 맞닥뜨리기 괴로운 일이다. 그녀에게 죽는다는 것은 이른바 모든 역량이 다하는 비기능성의 영역이 도래함을 뜻한다.

숨 끊어지면 한 생명체의 영혼은 이 세상을 두 번 다시 볼 수 없게 하직 하고 육체는 썩어 흙이 되고 마는 게 불변의 진리라 믿는다. 내한테는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권해도 소용없어요. 내 생사관은 몇십 년 전부터 흔들림

8) 「작품서사」는 작품 텍스트를 구성하는 근원의 이야기이며, 「자기서사」는 인생살이를 운영하는 인간 내면의 이야기다. 박재인, 「문학치료학 서사이론의 발전 과정에 대한 고찰」, 『인문학연구』 42,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0, p.19.

작품서사, 자기서사와 같은 문학치료학 서사이론에서의 용어 규정과 활용(국내)은 정운체의 논의에서 비롯되었다. 정운체의 논의에 대한 정리와 문학치료학에서 서사이론 및 용어에 대한 설명은 박재인의 논문을 참고하였다.

이 없어요.⁹⁾

이와는 달리 「나는 두려워요」의 윤선생은 죽음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믿으며 늘 숙연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이 계신 곳”에 가고자 기도한다. 이런 윤선생에게 있어서 죽음은 마음의 안식처로 가는 기꺼운 일이자 종교적 소명에 가까운 일이다.

주님, 이제 저를 안식요¹⁰⁾ 그 처소로 불러주시옵소서. 이땅에서요 삶에는 지쳤습니다. 하나님으 나라, 주님이 계신 곳에 제가 들 수 있는지요? 저를 받아주신다면 그곳으로 가고 싶습니다. 윤선생은 잠들기 전 그렇게 기원했다.¹¹⁾

「나는 나를 안다」의 주인공 초정택은 죽음을 수용하는 윤선생의 이러한 태도와 가장 상반된 모습을 보인다. 그녀는 과거에 살인을 저질렀던 사실을 부정하고 다가오는 죽음도 거부한다.

초정택이 머느리를 보며 눈을 흘긴다. 죽을 때가 되면 말문을 닫는다고? 시어미 앞에서 한다는 말이 고작 그거냐. 대학 공부까지 했다는 년이 뚫린 구멍이라고 뿔어나는 소리하고는. 나는 아직 죽을 때가 안 됐어. 일백 살 생일상 받을 때까지 청청하게 살 거야. 두고 기다려봐. 내 말이 어디 틀리는가.¹²⁾

한편 「나는 존재하지 않았다」의 김씨는 “노령의 죽음은 육신의 자살”

9) 김원일, 「나는 누구인가」, 『슬픈 시간의 기억』, 문학과지성사, 2001, p.19.

10) 관형격 조사 ‘의’를 ‘으’로 바꿔 쓰는 것은 노인의 실제 어투를 반영한 작가의 개성적 문체 전략으로 보인다.

11) 김원일, 「나는 두려워요」, 위의 책, p.143.

12) 김원일, 「나는 나를 안다」, 위의 책, p.135.

이라고 믿는 인물이다. 삶의 막바지에 이른 그는 죽음은 삶의 연장선상이며 사람은 죽음을 향해 누구나 슬픔을 참으며 가고 있으며 자신 또한 마찬가지라고 조카 김형준에게 허무주의적 생사관을 담담히 내비친다.

이 사람아, 죽음이 삶의 연장선상이란 걸 몰라? 유택을 이웃하는 삶이야말로 인간을 철학적으로 만들지. 화장장을 보며 나도 언젠가는 죽는다고 깨달으면 지금의 건강이 행복하고 오늘 하루의 삶을 충실하게 살 수 있잖아. 우리나라 사람은 유독 죽은 귀신을 두려워한단 말이야. 인간은 누구나 그런 공포심을 갖고 있긴 하지.¹³⁾

네 편의 소설에 등장하는 한여사, 초정댁, 윤선생, 김씨는 죽음 앞에 선 인간의 다양한 생사관(죽음관)을 보여주지만, 죽음을 부정하고 거부하든 담담히 혹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든 모두 죽음이라는 공통된 운명 앞에 가장 가까이 다가선 인간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노년소설에서 ‘죽음’은 이처럼 비중 있게 재현된다. 죽음에 대한 사유 즉 삶에 대한 사유, 나아가 메타인지적인 사유가 노년소설의 주요 테마인 까닭에 작품 곳곳에 죽음과 삶에 대한 아포리즘 또한 빈번하게 등장한다. 서사 속 아포리즘을 통해 드러나는 ‘죽음’에 대한 사유는 중국에는 ‘슬픔’이라는 정동에 대한 사유로 이어지면서 사유의 진폭은 더욱 확장되고 있다.

걱정, 두려움, 저항으로, 보통은 거부로. 우리는 이별이 주는 상실감 앞에서 인간들이 보이는 반응을 일반적으로 슬픔이라 부른다. 인간은 이 슬픔을 통해서만 상실감에서 해방되어 새로운 시작을 할 수가 있다. 스스로 끝내지 않는 사람은 누군가에게 끝냄을 당한다. 발레리.¹⁴⁾

13) 김원일, 「나는 존재하지 않았다」, 위의 책, p.290.

잡기장에 기록한 발레리의 인용을 통해서, 슬픔은 또 다른 시작을 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사실, 즉 삶에 대한 지혜와 통찰력을 김씨에게서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삶과 죽음에 대한 사유를 기반으로 하여 노년에 이른 인간과 그 일대기를 그려내는 노년소설은 생성과 소멸의 한 생(生)을 재현하는 장르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노인’, ‘노년’을 주목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다. 주지하다시피 노년이 팬데믹의 위기에 가장 내몰린 세대이기도 하고, 노인 또는 노년이라는 말이 ‘질병’과 ‘죽음’으로 연상되는 ‘쇠락’과 ‘소멸’을 떠올리게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학은 소멸과 생성을 함께 이야기하는 예술이다. 서사로서의 ‘시간’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인간의 삶과 죽음이 주요 테마가 되는 소설은 더욱 그러하다. 노년소설은 ‘소멸’의 서사이자 ‘생성’의 서사다. 나이듦과 젊음, 죽음과 삶이 그렇듯, 소멸은 생성 없이는 있을 수 없고 생성도 소멸 없이는 설명될 수 없기 때문이다.

2. 스토리와 정동¹⁵⁾의 층위: 고통, 우울, 분노, 슬픔의 병리증상 발현

쇠락해가는 육신과 늙어가는 추한 얼굴에 부아가 치밀곤 하는 한여사, 자신의 탐욕을 닮은 아들과 며느리의 유산 욕심에 분노하는 초정덕,

14) 김원일, 「나는 존재하지 않았다」, 위의 책, p.291.

15) ‘정동’은 최근 ‘감응’으로도 번역되면서 용어의 사용에 신중을 기하는 움직임이 있지만 이 글에서는 기존에 보편적으로 쓰였던 ‘affect’의 번역어로서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즉 이 글에서 정동은 급격하고 일관적이고 강력한 감정으로써 공포, 노여움, 기쁨, 놀람, 반감, 미움 등을 가리킨다.

종교적 신념 속에 평안을 추구하지만 죄의식으로 울적한 마음에 휩싸 이곤 하는 윤선생, 체념과 허무 속에 고독한 삶을 지탱해왔던 기로원의 사무장 김씨는 생의 슬픔, 죽음에 직면한 노년의 외로움과 슬픔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내 기로원 생활 육 년 동안 슬한 죽음을 목격하지 않았는가. 늙은이들은 외로워도 참고, 아파도 참고, 그리워도 참고 살지. 모진 성깔만 남아 화를 내고 누군가에겐가 욱질하며, 욱질하다 슬퍼져 그리워하며, 그렇게 참는 게 야. 참을 수밖에 없잖아. 늙은이들은 그렇게 슬픔에 간혀 겨우 숨을 쉬지. 그러나 그 슬픔에서 해방되어 새로 시작할 무엇도, 심지어 슬픔을 깨달을 자각력도 마비되어 있어. 이제 죽을 때가 됐다는 푸념을 입에 달고 살지만 내심으론, 사오년쯤, 아니, 십 년쯤은 죽지 않을 거라고 다짐하면서 말야. 죽는다는 게 두려워 그렇게 참고 견디지만 죽음은 의외로 빨리 닥쳐. 몸이 죽으면 혼미한 정신도 체념 상태가 되어 마지막 순간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지.¹⁶⁾

『슬픈 시간의 기억』에서 ‘질병’은 각 연작의 주제 형상화에서 주요한 기제로 작용한다. 따라서 질병은 작품의 주제이자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 ‘생의 아이러니’를 드러내 주는 소설적 장치다.¹⁷⁾ 소설 속 인물들의 고독과 체념, 우울, 분노와 노여움, 그리움과 슬픔의 정동은 치매(알츠하이머, 인지증), 뇌졸중, 신장암, 망막박리와 같은 병리증상을 발현시킨다. 이처럼 네 명의 초점화자 주인공에게서는 억압된 트라우마가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이들의 트라우마는 심리적 병증을 발현시키고 신체적 외상까지도 유발시킨다. 자의적으로든 타의적으로든 이 트라우마는

16) 김원일, 「나는 존재하지 않았다」, 위의 책, p.293.

17) 김은정, 앞의 글, p.350 참조.

은폐되어 치유되지 않았으므로 격화된 신체 증상을 야기하는 것이다.

「나는 누구인가」의 한여사는 정신대 즉 일본군 ‘위안부’ 라는 이른바 ‘수치스러운’ 과거를 숨긴 채 자신의 기억을 왜곡한다. 기억의 망각과 왜곡을 재촉하는 강박적 심리는 치매라는 정체성을 뒤흔드는 병증을 낳는다. 「나는 나를 안다」의 초정택 또한 과거 불륜 상대였던 이씨를 죽음에 이르게 한 사실을 부인하여 과거를 숨기고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한다. 「나는 두려워요」의 윤선생도 자신을 연모하던 남학생의 죽음에 연루된 과거를 숨긴 채 죄의식으로 고통받으며 살아간다. 「나는 존재하지 않았다」의 김씨도 격동기 한국 역사의 부침 속에서 독서와 잡기장 기록에 매달리며 우울하게 살아간다.¹⁸⁾ 염세적 회의론자인 그에게 어찌면 우울증과 조울병은 필연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병이었는지 모른다. 그는 학도병 징집을 피해 숨어 살았던 어린 시절부터 복讎에 처와 자식을 남겨둔 채 월남하여 고독한 독학자의 하루하루를 살아가기까지 삶의 난관이 있을 때마다 그로부터 ‘회피’하고 삶으로부터 도망쳤다고 회고한다. 노년의 그는 스스로를 유약한 방관자로 규정하며 억눌린 일상을 자조(自照)하며 살아간다.

사실 나는 슬픔을 통해서 새로 시작한 게 없어. 평양을 다녀온 후 자나깨나 경준이네 식구가 보고 싶다는 슬픔으로 목이 멎 뿐이지. 그러나 어떻게 만나볼 수 있어? 참는 도리밖에. 슬픔은 기억이 존재하는 한 잠재울 수 없으니, 죽자고 참는 수밖에 참고 참는 방법 외 눈물 닦고 봐도 어디에도 위안은 없더라. 결국 몸이, 내 눈이 이렇게 가듯, 스스로 슬픔을 죽이는 방법을 찾아내. 그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넌 모를 거야. 만약 내가 의료

18) 잡기장 기록은 ‘증언’의 기록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김씨는 역사의 산 증인이자 시대의 증언자로서의 삶을 살아왔던 셈이다.

진에 의해 치매 판정이 내려지면 지체 없이 독극물 주사를 사용해 목숨을 끊어줘. 내 의지로 자살할 용기가 없어서 이날까지 살았지. 난 그런 깨끗한 죽음을 평소에도 소원했으니깐. 잡기장 어디에 보면 그 유언이 써어 있을 걸. 김씨의 눈에서 한줄기 눈물이 흘러내린다.¹⁹⁾

이들의 노구(老軀)에는 고독과 우울, 분노와 슬픔이 자리하고 있으며 슬픔을 죽이기 위해 몸(육체)의 고통은 커져만 간다. 그리운 과거를 되돌릴 수는 없고 “슬픔은 기억이 존재하는 한 잠재울 수 없으니, 죽자고 참는 수밖에”(p.292) 없다. 어디에도 위안이 없다는 슬픈 자각은 일견 씩씩하게도 보이지만 황혼에 이르러 스러져 가는 한 사람(김씨)의 것이자 노년기에 이른 이들의 보편적인 현실 인식이자 자각으로 볼 수 있다.

3. 주체와 타자의 실존적 층위: 연민과 혐오의 양가적 존재

작가 김원일은 또 다른 소설 『히로시마의 불꽃』의 <작가의 말>에서 “내가 즐겨 선택하는 소재는 소외, 억압, 또는 결핍과 관련된 삶이다. 갠 자, 병든 자, 굶주린 자를 선택할 때 어떤 이야깃감이 떠오른다. 그런 소재가 나에게서 자연스럽다”²⁰⁾고 말한 바 있다. 기로원에서 생활하는 노인들은 서로에게 연민과 혐오의 양가감정을 함께 가진 소외된 존재들이다. 불쌍하고 가엾게 여기는 감정을 뜻하는 연민은 다른 이의 불행에 공감하는 것을 의미하고, 혐오는 불쾌하고 기피하고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의미한다. 일반적인 전제로서 노인이 아닌 사람들이 노인을 향한 연민과 혐오의 감정을 지닐 수 있다. 그런데 서사 속에서는 노

19) 김원일, 「나는 존재하지 않았다」, 위의 책, p.292.

20) 김원일, <작가의 말>, 『히로시마의 불꽃』, 문학과학사, 2000.

인들 서로에 대한 혐오의 감정이 두드러지게 재현된다. 즉 외부자의 시선이 아니라 내부자의 시선으로 노인이라는 공통점을 지닌 이들이 서로를 타자로서 인식하는, 타자화하는 일상을 보여준다. 서로를 향한 타자적 시선, 타자화는 특히 한여사와 초정택의 갈등에서 전면적으로 드러난다. 초정택은 한여사를 ‘광대택’이라고 비웃는다. 화려한 치장에 공들이며 품위를 갖추려 애쓰는 한여사의 모습에 귀부인인 체한다며 경멸과 혐오를 보낸다. 초정택은 한여사가 정신을 놓은 후 일제 때 정신대로 끌려가고 한국전쟁 때 양공주로 살았던 그녀의 삶을 멋대로 추측하며 깎아내린다. 마찬가지로 한여사도 말 많은 초정택을 수다스럽게 지분대는 사람 즉 저질스럽고 눈치 없어서 곁에 있기 싫은 사람으로 여기며 홀대한다.

소설 속에서 초정택과 한여사가 주로 혐오의 대상으로 재현된다면, 윤선생과 김씨는 존경의 대상으로 주로 재현된다고 할 수 있다. 김씨는 철학(적 지식)을 통해 인간과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윤선생은 종교(적 신념)를 통해 신을 이해하기 위해 교육과 봉사의 방법으로, 나 아닌 다른 존재들 즉 타자들을 돌보는 삶을 여일하게 살아간다. 그리하여 각각 조카 형준과, 고경률과 허환을 비롯한 많은 제자들의 존경과 보살핌을 받지만 마음 한구석의 결핍감은 내내 사라지지 않는다.

요컨대 소설 속 인물들은 연민과 혐오의 주체이자 대상이 된다. 쇠락하고 병든 인간으로서 연민과 혐오의 양가적 감정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오랜 세월 쌓아온 연륜과 경험 덕에 존경²¹⁾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21) 과거에 노인은 사회적 존경의 대상이었는데, 근대 이후 인간은 끊임없이 나이의 흔적과 싸우고, 자신의 직업을 잃어버린 채 더 이상 직장을 구할 수 없는가 하면, 젊은 사람들과의 대화의 장에도 더 이상 끼지 못할 것이라는 근심 속에서 늙어가는

것이다. 일례로 김씨의 조카 형준이 작은 아버지이자 인생 선배로서 김씨를 경외롭게 바라보는 데서 이러한 존경심을 찾아볼 수 있다. 윤선생의 제자들도 연로한 스승을 향한 경외와 존경의 마음을 지니고 있다. 그들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윤선생에게 “선생님 같은 분이 그곳에 못 가신다면 이 세상에 아무도 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p.218)고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하늘나라, 천국으로 갈 거라고 말하며 위로한다. 제자들은 윤선생을 마치 “의인 욥이나 예레미야와 같은” 고아한 인격의 소유자로 추앙한다.

한편, 혐오의 양상은 표면적으로는 다르지만 혐오의 정동은 네 사람 모두를 둘러싸고 있다. 초정택과 한여사가 타자에 의해 혐오의 대상이 되었다면, 윤선생과 김씨 또한 그들 스스로가 초정택이나 한여사와 다를 바 없는 혐오의 정동을 갖고 있다. 명확히 말하자면 이들의 혐오는 ‘자기 혐오’에 가깝다. 밝힐 수 없는 결핍으로 점철된 수치스러운 과거, 원죄와도 같은 죄의식은, 거기에서 벗어나려 할수록 다시 옥죄는 울무와도 같다. 그러므로 울무에 걸린 그들은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요? 초정택은 자는 잠에 편안히 세상을 떠나는 데 저에게는 왜 이렇게 격심한 고통을 주시나요? 차관할머니나 한여사처럼 차라리 고통조차 알지 못하는 치매는 오지 않고, 생살 찢는 이런 고통을 주시다니. 저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의인 욥이나 예레미야가 아닌 평범한 늙은이잖습니까. (……) 성령의 힘으로 언청이를 면했는데 이를 시침 때며, 사람 앞에서 나는 어릴 적에 언청이었다고 고해한 적 없지 않으나구 꾸짖으십니까. (……) 하늘 아래 영원히 숨겨지는 죄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야말로 그 살인죄를 평생 숨기고 살았습니다. (……) 부끄러운 말이지만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송명희, 「노년담론의 소설적 형상화 - 박완서의 「마른꽃」을 중심으로」, 『인문학자, 노년을 성찰하다』, 푸른사상, 2012, p.17.

저도 여성인데 왜 자식 낳아보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어요. (……) 그건 그런데, 저라고 왜 육으 욕망이 없었겠습니까. (……) 주님, 제 어리광을 받아주세요.²²⁾

결론적으로 네 사람 모두 육체에 대한 욕망과 육체의 소멸과 질병과 노쇠로 인한 육체적 고통 아래 신음한다. 그리고 그들의 고통은 각자에게 절대적인 고통이기에 견디기 어렵다.

작품 전반에서 한여사와 초정택은 이른바 “정욕과 자기의(自己義)”²³⁾ 즉 자기를 위하여 하는 행동에 휘둘리는 부정적인 인물로 묘사된다. 특히 자기합리화와 교만에 찌든 초정택이 가장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 그런데 윤선생과 김씨가 보여주는 연륜과 경험, 고통에 대한 의연함 뒤에도 결핍감과 허무함은 자리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또한 외면할 수 없는 삶의 또 다른 부정성이라고 볼 수 있다.

언뜻 보기에 한여사와 초정택은 육체를 지향하는 육체적 인간형이고 윤선생과 김씨는 정신적인 것을 추구하는 정신적 인간형으로서 무척 다르게 보인다. 그러나 지나간 삶의 과오를 망각하려 했으나 결국 기억하게 되고 노쇠한 육체의 고통에 신음한다는 점에서 보면 사실상 두 부

22) 김원일, 「나는 두려워요」, 앞의 책, pp.218-219.

23) 자기의는 자기를 위해 하는 행동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데, 김주연은 『슬픈 시간의 기억』의 해설 「육체의 소멸과 죽음의 상상력 - 김원일의 새 연작장편소설」에서 기독교적 관점에서 작품의 의미와 의의를 찾은 바 있다. 그에 따르면 정욕과 자기의로 뭉쳐진 인간이란 존재는 저주받은 존재다. 따라서 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원의 방법이 과연 있는지 의문시한다. 이어 정욕과 자기의, 욕망과 교만의 현상이 인간의 육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인간의 욕망과 교만은 비록 저주라고 할지라도 인간이 실존하는 한 그 모습으로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죄악시킬 수만은 없는 것이고 인간은 여기에서 자유로워지기 어렵다고 덧붙인다. 김주연, 「육체의 소멸과 죽음의 상상력 - 김원일의 새 연작장편소설」, 『슬픈 시간의 기억』, 문학과지성사, 2001, pp.295-296.

류의 구분은 무용하다. 노년에 이른 이들에게 과거에 대한 회한과 후회는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소설 속 인물들의 현전(現前)은 김주연이 말한 바 “육체는 우리의 실존이 불완전한 존재임을 표징하는 구체적인 증거”²⁴⁾임을 보여준다. 이런 맥락에서 조카 형준에게 건네는 김씨의 마지막 말은, 타자로서 타자화된 시선을 감내하고 주체로서의 지난한 삶을 살아내려 애쓰기에, 결국은 필연적으로 인간 실존의 불완전성을 보여주는 ‘슬픈’ 유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 말은 가족에게 남기는 유언이자 세상을 향한 유언이기에 더욱 와닿는다.

존재했으나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던, 발붙일 데 없이 외롭고 고독한 홀홀단신의 삶을 살아왔던 김씨의 임종은 인간의 존재적 여건인 고독과 외로움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생의 슬픈 피날레다.

III. 노년소설의 치유적 효능

1. 역사와 기억을 통한 시공간적 체험: 기억과 통찰

「나는 누구인가」와 「나는 존재하지 않았다」에서는 역사적 상흔을 간직한 노년의 두 주인공이 등장한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나는 누구인가」의 한여사는 일본군 ‘위안부’, 양공주로 살았던 시절이 있다. 그녀는 그 시절에 대한 기억을 소거하고, 세월의 풍파 없이 살아온 고상하고 품위 있는 ‘귀부인’으로 자신을 포장하고 기억을 대체·위장한다.

24) 김주연, 위의 글, p.296.

한여사는 의식이 가물가물해진 채 천길 구덩이로 떨어진다. (……) 일 년 남짓 만에 남양에서 살아 돌아온 게 기적 같았다. 한경자 할머니, 정신이 듭니까, 듭니까, 니까, 까? 묻는 소리가 에코로 된다. 난 양색시가 아냐, 귀부인이야, 귀부인이야, 이야, 야. 누군가 내지르는 소리가 까마득한 공간으로 사라진다. 한여사의 입술이 풍 만난 듯 떴다. 그네는 틀니 이를 앓다문다. 난 안 갈 테야. 난 다시, 그런 곳에, 안 살 테야. 제발, 제, 발 날 그런 곳에, 보내지 마, 한여사가 울부짖는다. 그네의 눈에 눈물이 고랑을 이룬다. 한여사, 나요. 윤선생이요. 걱정 말아요. 나동에 안 가고 삼호실에서 그대로 살 테니, 진정해요. 이렇게 흥분하면 건강에 해로워요. 그러자 한여사가 가느다랗게 신음을 흘린다. 난 야, 양갈보가, 아니에요. 귀, 귀부인이라니깐.²⁵⁾

트라우마에 대한 기억은 그 자체로 트라우마다. 트라우마를 회상하는 일은 고통스럽고 적어도 피해자의 마음을 심란하게 하기 때문이다. 상처를 받은 사람은 고통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그 기억을 지우려는 경향이 있다. 상처를 준 사람은 그 기억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신의 죄의식을 덜기 위해 마음 깊숙이 그 기억을 몰아내버린다.²⁶⁾ 한여사가 전자에 해당한다면 초정택이 후자에 해당하며 그 중간에 김씨와 윤선생이 있다. 한여사는 일제시대에는 정신대 즉 일본군‘위안부’로 남양까지 끌려갔고 한국전쟁 이후에는 멸칭 ‘양색시/양갈보’로 불리며 역사의 풍파 속에 고난의 삶을 살았다. 그녀는 미국으로 입양 보낸 아들 토미에 대해서도 주위사람들에게 윤색하여 말하곤 한다. 이야기 말미 “내가 도대체 누구지?”라고 자문하는 그녀의 혼란스러운 모습은 치매라는 질병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지껏 자기자신을 부정해왔기에 빚어진 결과로도 볼 수 있다.

25) 김원일, 「나는 누구인가」, 위의 책, p.55-56.

26) 프리모 레비, 이소영 역, 『가라앉은 자와 구조된 자』, 돌베개, 2014, p.24.

노쇠해지면 인간은 병 끝에 죽음을 맞이하지만, 이렇게 죽음이 찾아오는 구나 하는 공포를 느낄 때 흐려지는 기억은 대체로 두 가지 환상을 맞는다. 말을 사경에서 헤매다 구사일생으로 깨어난 애린원 식구를 통해 들은 적이 있다. 끔찍한 악몽으로 남은 기억이 죽음과 맞물려 설핏 스치거나, 잊혀지지 않는 어느 시절의 아름다웠던 기억이 순간적으로 떠올랐다 사라진다는 것이다. 홀연히 떠오르는 그 기억을 자의로 선택할 수 없다는 데 죽음의 운명이 있다.²⁷⁾

윤선생의 이 말에 따르면 한여사가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끼며 흐려지는 기억 속에 맞은 환상은 “끔찍한 악몽으로 남은 기억이 죽음과 맞물려 설핏 스치는”(p.151) 환상일 것이다. 죽음에 이르러 더욱 선명해지는 기억, 인물들의 삶은 지난 세기 다사다난했던 한국 역사와 맞물려 고난과 고통으로 점철되어 있다. 작품 속에서는 특히 한여사와 함께 김씨가 고난의 역사의 산 증인이자 역사의 트라우마를 지닌 인물로 두드러지게 묘사된다.

「나는 존재하지 않았다」의 김씨는 북한에 있는 처자식과 떨어져 현재 이산가족으로 살아가는 처지다. 자신 때문에 월북한 처에게 부채감과 미안함을 가득 안은 채 살아가는데, 유일한 위안이자 삶의 동력은 잡기장 기록이다. 젊은 시절 자신을 매혹시켰던 ‘독서’도 “흐려오는 정신, 떨어지는 집중력과 닳아가는 기억력”(p.230)을 늦추고 무료하고 진부한 일상을 견디기 위해 그가 선택한 방법이다. 사르트르의 실존주의에 매혹되었던 젊은이는 어느새 노년에 이르러 허무적으로 세상을 인식하는 외로운 독학자의 삶을 살고 있다. 그리하여 삶의 막바지에 이르러 “삶이란 지식의 축적으로 요약될 수 없고 그 누구도 삶의 해결책을

27) 김원일, 「나는 두려워요」, 위의 책, p.151.

제시해주지 않는다”(p.229-230)는 사실 즉 삶, 현실에 대한 씩씩한 통찰을 얻는다. 회고하건대, 그는 어린 시절 부친의 강요에 의해 떠났던 일본 유학을 결국 중단하였고, 강제 징병을 피해 도피했던 중국에서는 여러모로 쓰라린 체험을 했다. 그곳에서, 살기에 바빠 독립과 해방에 관심이 없는 동포들의 무기력한 삶을 비웃었지만 자신 또한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존재임을 깨달았다. 임정 사무실에서 필경사 노릇을 하며 독립투쟁에 일조하기도 하였지만 정신 착란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해방 후 귀국하고 나서는 정신 질환인 조울병 증세가 도졌고 “대인 기피증이 심해 세상에서 잊혀진 존재로 숨어 살 수 있는” 도서관 근무라는 직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해방 정국이 가져다준 사회적 혼란 즉 좌우익의 소모전을 목도하면서부터는 암담한 심경으로 세월을 보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조카 형준만은 살아온 세월 내내 그가 “영원한 우상”이었으며, “현자의 잠언”과도 같던 그의 말이 인생의 길잡이 역할을 해주었다며 고마워한다. 교통사고로 몸을 다치고 망막박리, 순간적 기억 상실, 현실 인식의 혼란을 보이는 지금, 조카 형준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과거의 소중한 시간들을 그가 기억해내기를 재촉한다.

실존주의에 경도되었던 김씨가 어디에도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고 스스로의 삶을 규정하는 것은 안타깝고 서글픈 일이다. 이러한 그의 염세론적 회의주의에 개의치 않고 조카 형준은 삼촌의 무욕한 삶에 의미를 부여하려 애쓴다.

그는 무욕의 삶을 평생 동안 지탱해온 삼촌의 생애를 되짚으며 대화를 진행시킨다. 작은아버지가 어떻게 살아오신 건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남에게 읽힐 만한, 꼭 의미있는 기록이 아니더라도 작은 아버지의 개인적인 그런 기록 또한 중요하지요. 자기 삶으 각성과 반성적

측면을 떠나서라도, 역사란 게 어디 따로 있나요? 개인사적 삶의 기록이 모이다 보면 그 시대 민초들의 생활이 총체적으로 드러나잖아요. 작은아버지가 오랫동안 기록해온 그 잡기장이 훗날 우리집안의 가보가 될 수도 있어요. 선조가 당대를 어떻게 살았는가, 당시 무슨 책을 읽었는가, 그때 유행이나 풍속은 어떠했는가, 당대 물가까지, 모든 게 기록되어 있을 게 아닙니까.²⁸⁾

그러나 김씨는 이것조차 덧없다고 여긴다. “이름 없이 한살이를 살곤 이름 없이 죽는 풀”이라는 뜻의 민초로서 삶을 부풀리고 싶지 않다는 그는, 아마도 “천천히 성장하고 아주 천천히 죽”는 나무처럼 그도 “느린 삶을 오래 사는” 나무처럼 살아왔는지 모른다.

한편으로, 마치 자연의 공존에서처럼 “위대함과 비루함이 없고 잘남과 못남이 없이”, “권위와 명예를 다투지 않는” 삶을 중시하는 그의 이런 생각은 후손, 이후 세대 즉 노년의 삶에 다다르지 않은 이들에게 삶의 지혜와 통찰을 제공해줄 수 있다. 특히 「나는 존재하지 않았다」에서 ‘기억’과 ‘기록’의 행위는 역사의 본질에 연관된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앞서 언급한 「나는 누구인가」에서의 ‘기억’이 의도적 망각으로 소멸되는 것이라면, 「나는 존재하지 않았다」에서의 ‘기억’은 ‘기록’의 방법으로 보존되는 것이다. 전자는 의도적으로, 후자는 자연적으로 그 기억이 ‘상실’되거나 되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두 서사 속 ‘기억’은 유사한 면이 있다. 한편으로 각각은 억누를수록 솟구쳐 오르는 기억(「나는 누구인가」), 되살리려 하지만 사라지는 기억(「나는 존재하지 않았다」)이라는 점에서 다른 측면도 있다. 망각에 저항하는 기록 행위는 그 자체로 온전한 ‘억압된 기억 불러내기’라고 볼 수 있다. 기록은 개인이 역사의 파도를

28) 김원일, 「나는 존재하지 않았다」, 위의 책, p.282.

헤쳐오면서 겪은 시공간적 체험을 되살려서 기억하고 역사와 세상 그리고 인간을 통찰하는 행위이다. 이렇게 기억을 기록한다는 것은 기록하며 기억해내는 것이기도 하다.

현대사회에서는 노년에 접어들면 나이듦은 성숙해진다는 의미가 사라지고 그냥 늙어가는 것 또는 ‘노화(aging)’라 명명되며, 쇠약, 상실, 배제 등 인생의 절정으로부터 점점 멀어짐을 의미해왔다. 또 이런 부정적 의미들이 마치 노화 과정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본질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그러나 어떤 시대, 어떤 사회에서 노화에 부여되는 의미들은 그 과정의 생물학적 본질들이 그대로 투영된 결과가 아니라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다.²⁹⁾ 작가 김원일이 주의깊게 천착한 ‘노년소설’에서 노년 인물들의 노화와 죽음의 묘사를 통해 독자는 노화와 죽음을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으며 새로운 인식에 다다를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년소설은 노화, 죽음 결국 삶에 대한 통찰을 제공해줄 수 있는 장르이기 때문이다.

노년의 삶을 스러져 가는 시간으로도, 소멸을 목전에 두고 있는 듯한 시간으로도 볼 수도 있겠지만, 노년의 시간이 생성을 전제하고 있으며 다른 세대의 생성의 시간에 다양한 측면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특히 노년소설에서의 회억 즉 회상과 회고는, 주인공을 비롯한 작중인물로서는 은폐되거나 왜곡된 것일지라도 독자들에게는 개방되고 공유되는 기억이며 고백에 해당한다. 이 자기노출, 자기폭로는 당사자에게는 마음의 정화와 함께 통찰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기이해에 다다르게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으레 “사람들은 절망한 사건들에 대해 이야

29) 한혜경, 「의료와 미디어 산업의 노년담론 비판」, 『인문학자, 노년을 성찰하다』, 푸른사상, 2012, pp.140-141.

기를 함으로써 사건에 대한 통찰을 얻고 자신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우”³⁰⁾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정화와 통찰의 경험은 실제 독자에게도 전수되는 것이다.

한편으로 문학 치료의 관점에서 보면 노년소설을 읽는 독자는 이른바 수용적 방식으로 치유의 효과를 얻는 것이고, 작가 및 화자인물은 자신의 이야기를 말하면서 생산적 방식으로 치유의 효과를 얻는 것이다. 네 인물의 자기서사에 기반한 소설의 작품서사는 엄밀히 말해 초점 화자 주인공의 치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서사에 재현된 트라우마를 가진 독자의 치유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요컨대 지혜와 경험을 쌓으면서 노년에 이른 이들은, 증언과 기록을 통해 ‘기억’을 전수하고 ‘통찰’의 해안을 발휘함으로써 역사적 비극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역사가 희망을 ‘확증’해줄 수는 없다고 해도 희망의 역사를 향한 소망이 없이는 새로운 역사를 꿈꿀 수 없”³¹⁾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노년의 경험과 해안은 일상적 통찰력뿐만 아니라 역사적 통찰력을 제공함으로써 역사적 비극으로 인한 상흔을 없애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작품 속에서는 한국전쟁, 군부독재 시기의 고난을 겪은 이들의 기억이 담겨 있다. 결국 이들의 고통은 ‘사회적 고통’이다. 그리고 이 사회적 고통은 노년의 삶에 내재한 기억(하기)과 통찰, 정화의 힘으로, 이른바 ‘기억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노년이 자임함으로써 일부나마 치유될 수 있을 것이다.

30) 페니 베이커, 김종환 외 역, 『털어놓기와 건강』, 학지사, 1999, p.46.

31) 하비 케이, 오인영 역, 『과거의 힘 - 역사의식, 기억과 상상력』, 삼인, 2004, p.10.

2. 재난과 질병을 통한 병리적 체험: 공감과 소통

“예술의 가장 보편적인 단 하나의 주제가 인간적 고통의 어떤 형태”(월터 슬라토프)³²⁾라는 말을 상기하면, 인간적 고통의 보편적 형태의 대표격인 노년의 고통에 대한 공감은 중요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다. 소설 등의 서사에서 “작가들은 비록 불완전하게라도 고통에 음성을 부여함으로써 작가들은 고통과 우리의 난해한 관계를 변화시키고 개선시키기 위해 투쟁”³³⁾한다. 일반적으로 노인이 주로 맞닥뜨리는 문제는 고독, 질병, 빈곤, 무위(無爲)이며 이러한 노인의 중고(重苦)는 노인을 향한 혐오와 차별의 시선 속에서 커지게 된다.

코로나19라는 감염병으로 인한 고립과 소외의 ‘재난의 시대’인 현시점에서 작품을 들여다 볼 때,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병리적 체험의 극한에 다다른 지금, 육체적 질병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고립의 문제가 다른 연령대보다 노인들에게 타격을 가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시대적 분위기에 따라 노인이 겪는 고독과 외로움, 분노와 우울 등의 병리증상은 더욱 격화되고 악화된다. 결핍은 트라우마를 낳고 억압된 트라우마는 정신적 혹은 육체적인 병증을 낳는다. 문학 작품에서 트라우마를 재현할 때 노인 인물은 여러 면에서 적합한 재현 대상이 된다. 노년은 생의 시간이라는 물리적인 노화(나이듦)의 측면에서나 고난 경험의 축적이라는 면에서 다른 어떤 연령대보다도 설득력 있고 개연성이 있는 묘사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노년에 대한 왜곡과 낙인찍기는 계속되고 있으며, 노인인구의 증가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나타나는 노인혐오증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노

32) 아서 클라인만·비나 다스 외, 안종설 역, 『사회적 고통』, 그린비, 2002, p.224.

33) 위의 책, p.232.

인협오는 경제적 영역에서 효율성과 관련하여 노골적으로 그 문제를 드러냈을 때보다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은밀하게 확산될 때, 이에 저항하기가 힘들어진다. 노년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의 확산과 고착화는 ‘노인’이라는 칭호를 부정적 어감을 갖는 말로 변질시키는데, 이러한 부정적 의미함축은 일종의 이데올로기로 작동한다.³⁴⁾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건강이 좋지 않고, 우울 증상이 있을 때, 성별상 여성일 때, 연령상으로는 노인일 때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이 더욱 증가한다고 한다.³⁵⁾ 즉 두려움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특성을 확인해 보면, 여성과 노인이 두려움에 가장 취약한 존재이며 이들이 갖는 불안과 두려움은 ‘협오’의 결과이자 원인이 된다. 특히 노인이 갖는 취약성은 건강 문제와 관련해서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질병에 취약하고 유행병의 감염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선입견과 죽음에 가장 가까운 연령 대라는 사실만으로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소외되고 미는 것이다. 일례로 작품 속에서 한여사가 젊은 외모에 집착하는 것도 노화와 죽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때문이다.

노인에 대한 차별과 협오는 ‘노인문제의 공론화’를 통해 우선적인 해결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세대간의 갈등 완화를 위해 통계와 같은 과학적 수치를 담은 조사 등의 사회학적 방법의 동원으로 현실을 진단하고 대안을 마련할 수도 있겠지만 문학적으로도 유효한 방법이 있다. 바로 ‘자경(自敬)’과 ‘공감’을 복돋워주는 소설과 같은 문학 작품 읽기다.

34) 권수현, 「노년의 삶과 정체성」, 『철학연구』 제149집, 대한철학회, 2019, p.1.

35) 문정화·김수진·성기욱, 「코로나19 두려움과 영향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32집 1호,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21, p.286.

우선 ‘자경’은 노인 당사자의 자기치유의 근본적이고 중요한 단계다.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선을 점검하여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돌보는 것이 자경의 의미다. 철학적 의미로서 자경하기는 “자기 인격의 절대적 가치와 존엄을 스스로 깨달아 아는 일”이다. 노년의 자경은, 쇠락한 자기의 현 상태를 수용하고 지금 자신에 대해 만족하고 자신을 긍정할 수 있으며 자신감을 지니는 상태로서 자기 배려, 자기 돌봄의 단계에 해당한다.³⁶⁾ 소설 속 노년인물을 비롯한 노인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자경’ 의식을 갖추는 일이다.

이처럼 자경이 주체로서의 마음 정립이라고 본다면, ‘공감’은 타인과의 소통과 교류 속에서 이뤄지는 치유의 전제(前提)적 단계다. 공감의 측면에서 보자면, 『슬픈 시간의 기억』의 작중인물 중에서는 공감 능력이 뛰어난 윤선생과 반대로 공감 능력이 부족한 초정택이 대비된다. 고통을 함께 느끼는 공감 능력은 세대간, 사회적 소통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능력이다. 그리고 이때의 공감은 통감(痛感)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다.

지나온 세월이 말해주듯 한국사회의 노년은 재난과 참사를 가장 많이 겪은 세대다. 식민 체험과 전쟁 체험, 그리고 정치적 혼란의 격동기를 지나온 세대인 것이다.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빈곤과 질병, 이데올로기 대립으로 인한 반목과 갈등 등으로 한국의 노년은 지구상 다른 어떤 나라와 비교해서도 유난히 파란만장한 세월을 견뎌냈다고 할 수 있다. 수많은 재난의 시간, 그 오랜 시간을 지나오면서 쌓은 연륜과 경험, 삶의 지혜는 중요한 노년의 자산이자 인류의 자산이다. 특히 재난과 참사

36) 공춘옥·김봉환, 「성폭력 피해 여성들의 “성장(thtiving)” 경험의 의미」, 『한국심리학회지』 제19집 4호, 한국심리학회, 2014, 12, p.420 참조.

를 통과해오면서 연장자로서 보여줬던 윤선생의 고귀한 봉사과 헌신, 생존자 및 증언자로서 신뢰감을 주는 김씨의 묵직한 모습은 후속 세대에 대해 의미 있는 본보기가 되어줄 수 있다.

우리 시대는 “세대 간 협력의 주체로서의 노인”의 역할이 절실히 요청되는 시기다. 세대갈등론의 관점에서 무기력하고 무방비하게 노년의 역할을 경시할 것이 아니라, “노인이 가진 경험과 자원을 젊은 세대의 욕구와 연결시킴으로써 노인이 세대통합의 주체가 될 수 있음”³⁷⁾은 정책적으로 제시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술적으로도 보여줄 수 있다.

다시 말해 노년소설 작품을 읽음으로써 인간의 근원적 고통에 대해 알고 보다 더 이해하게 될 수 있다면, 공감은 시작되고 이른바 재난 공동체로서의 사회적 통합과 진정한 소통은 가능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노년소설 읽기를 제안하는 이유다. 여기서 덧붙일 것은 모든 이에게 노년이 하나의 유형만 있는 것은 아니며, 누구나 노년을 다르게 경험한다(세네카)³⁸⁾는 사실이다. 이 때문에 노년 및 노년의 고통의 의미를 다층적이고 섬세하게 이해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긴요한 일이 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작품에서 서사적 재현의 맹점이 존재한다. 그것은 바로 물질적 빈곤의 측면에서 나타난다. 즉 『슬픈 시간의 기억』에서는 노인 문제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노인 빈곤’ 문제가 드러나 있지는 않다. 초점화자 주인공이 가난한 어린 시절, 빈곤과 궁핍의 시간을 견뎌낸 자들이기는 하지만 말년에 이른 노년의 빈곤 문제는 직접적으로 다루

37) 김수영·모선희·원영희·최희경, 『노년사회학』, 학지사, 2009, pp.295-296.

38) 슬라미스 사하르 외 6인, 안병직 역, 팻 테인 편, 『노년의 역사』, 글항아리, 2012, p.58.

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실 인식의 한계나 전망의 부재는 빈곤과 같은 경제적 문제를 다루지 않았을 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짚어봐야 할 부분이다.³⁹⁾

팬데믹 시대의 재난은 정서적 빈곤과 물질적 빈곤 모두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여타의 재난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만은 틀림없다. 정신적 빈곤의 측면에서 보자면, 재난의 결과 존재론적 고독과 단절, 소외의 경험은 자아의 윤희를 발생시킨다. 팬데믹 시대의 재난의 결과, 존재론적 고독과 단절, 소외의 경험이 전세대에 걸쳐 만연하고 이것은 비단 노년세대만이 전유하는 경험이 아니게 되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감염병의 창궐이 불러온 혐오와 배척의 시선이 곳곳에서 목격되며. 의도치 않은 격리와 배제의 경험을 갖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다. 질병으로 인한 육체적 고통도 크지만 질병으로 소외되고 배척되는 정신적 고통이 더욱 커져가는 때다. 확진자, 격리자 등 감염(위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의 메커니즘은 노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와 다르지 않다. 감염자와 노인에게서는 마사 누스바움이 말한 바 있는 ‘원초적 혐오’뿐만 아니라 “원초적 혐오가 이성적 검토를 거치지 않고

39) 한국사회에서, 삶의 만족도와 관련 깊은 노인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얻고 국가적으로 타개책과 복지정책으로서 요양병원 활성화가 이뤄진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소설 속 사설요양원에서의 생활은 당시 경제적인 면이 뒷받침되는 노인들에게 허용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작품 속에서는 노인 빈곤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이들의 또다른 문제에 초점이 맞춰진다. 창작자 입장에서 보면 이는 결국 소재 선택과 메시지 전달을 위해 선택과 집중을 한 작가의 노림수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 노림수는 서사적 재현의 한계로 작용하기는 하나 서사내용의 전달에 있어서는 충분히 효과적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미래와 전망의 차원에서, 앞으로 등장할 노년소설 작품에서는 경제적 현실 문제가 소재나 주제 차원에서 각각도로 의미 있게 다뤄짐으로써 또 다른 유의미한 문제의식이 펼쳐지기를 기대해본다.

다른 대상으로 확장'시키며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집단에 혐오를 뒤집어 씌우는 '투사적 혐오'"⁴⁰⁾의 양상이 도드라진다. 안타깝게도 현재 한국사회에서 노인은, 이른바 2-30대 청년세대 못지않게 감염병이 드러낸 편견과 혐오의 대상으로 기피되고 있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들의 병리적 체험에 대해 혐오와 차별의 시선을 거두고 고통을 나누고 공감, 통감하며 차이에 대해 존중하는 것만이 진정으로 인간 존엄에 대한 존중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위드코로나 즉 코로나와 함께 포스트코로나 즉 코로나 이후 시대를 살아나가게 할 수 있다. 바라건대 『슬픈 시간의 기억』과 같은 문학 작품이 독자에게 주는 기억과 통찰의 힘 그리고 이어지는 독자들의 공감과 소통 나아가 현대의 노력⁴¹⁾으로 시대의 우울과 분노, 불안과 외로움은 잠재워질 수 있다.

IV. 결론: 치유의 문학으로서 노년소설

이글에서는 소멸과 생성이라는 원환 다시 말해 죽음과 삶에 대한 철학적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인간의 실존과 욕망에 주목하여 중국에는 인간의 '망각한 과거'이자 '다가올 미래'를 이야기하는 노년소설의 치유적 가능성에 주목하였다. 사실 치유는 노년이라는 세대에만 해당하는

40) 이지성, 「코로나19 시대, N포 세대의 '두려움'과 '혐오'에 대한 윤리적 과제」, 『기독교사회윤리』 제48집,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2020, pp.191.

마사 누스바움의 혐오 개념에 대해서는 이지성의 논문을 참고하였다.

41) 우리는 재난의 와중에 겪은 고통에 대한 공감과, 죽음과 희생에 대한 진정한 애도가 이뤄졌는지 숙고할 필요가 있다. 고통과 슬픔을 같이 느끼는 것 즉 공감(통감)과 애도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를 위해서도 긴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감을 통한 소통은 환대로 나아갈 때 강화될 수 있다.

것이 아니다. 또한 공감과 소통 나아가 치유의 경험은 노년소설을 읽는 독자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이며 실제 작가의 자기치유에도 기여하는 것이다.

노년소설은 노년소설의 독자가 얻는 치유적 효과 외에도 사회적 존재로서 노인의 위상을 제고하게 만들 수 있다. 노년소설의 이러한 측면은 문학의 사회적 역할을 기대하게 만든다. 지금 여기 우리가 맞닥뜨린 포스트코로나 시대, 과거의 향수에서 벗어나 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는 때에 노인이라는 ‘존재’와 노년소설이라는 ‘예술’은 유의미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감염병에 취약한 대표적 계층인 노년에 주목하고 그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문학적·재현함으로써 노인에 대한 혐오감을 불식시킬 수 있으며, 노년의 당사자와 이에 해당하지 않는 독자 사이의 괴리감과 거리감을 없애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노인은 “전적으로 시간을 살아가는 존재이자 시간의 소유자이며 시간을 인식하는 사람”⁴²⁾이다. 작가는 『슬픈 시간의 기억』에서 소외되고 억압되고 결핍된 삶 속의 ‘슬픈 시간’의 재현을 통해 치유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역사의 시간, 고통의 시간, 죽음의 시간을 회억함으로써 개인적 트라우마에서 사회적 트라우마까지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문학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다시 말해 작가 김원일은 개인적 고통에서 나아가 사회적 고통까지 그 사회적 치유의 가능성을 탐구한 셈이다. 그는 타자화된 노년의 삶을 재현하였으며 노인 당사자 곧 내부자의 시선에서 바라본 노인, 노년의 삶의 문제성에 착목하여 ‘억압된 기억의 불러내기’로 서의 서사를 완성하였다.

42) 장 아메리, 김희상 역, 『늙어감에 대하여 - 저항과 체념 사이에서』, 돌베개, 2014, p.39.

피할 수 없는 질병과 죽음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팬데믹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노화와 질병, 죽음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때다. 더불어 노인 이미지 및 노화 즉 나이듦과 죽음에 대한 새로운 지식도 필요한 시기다. 이런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잠재력이 ‘노년소설’, ‘노년소설 읽기’에 있다. 무엇보다도 노년소설은 고통과 슬픔을 서사화하여 현실적으로 드러냄으로써 트라우마를 치유하려 힘쓰는 문학이기 때문이다. 이에 노년소설은 팬데믹 시대에 돋보이는 유효한 서사적 효능 즉 치유성을 지닌다.

요컨대 노년소설을 읽는 독서체험은 첫째, 역사와 기억을 통한 시공간적 체험 속에서 갖게 된 내상과 외상을 기억과 통찰을 통해 극복하게 할 수 있다. 둘째, 고통과 통감을 통한 병리적 체험 속에서의 상처를 공감과 자경으로 극복하게 할 수 있다. 셋째, 재난과 빈곤의 일상적 체험 속에서의 상처를 소통과 환대를 통해 치유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담지하고 있으며 이를 구가하게 할 수 있다. 이에 ‘노년소설’은 노년의 삶을 통해 인간의 근원적이고 다층적인 고통과 슬픔을 보여줌으로써 인간분유의 트라우마 치유에 기여하는 문학이라고 포괄적으로 정의내릴 수 있다.

【참고문헌】

〈기본 자료〉

김원일, 『슬픈 시간의 기억』, 문학과지성사, 2001.

〈논문 및 단행본〉

- 공춘옥·김봉환, 「성폭력 피해 여성들의 “성장(thtiving)” 경험의 의미」, 『한국심리학회지』 제19집 4호, 한국심리학회, 2014, pp.409-431.
- 권수현, 「노년의 삶과 정체성」, 『철학연구』 제149집, 대한철학회, 2019, pp.1-28.
- 김수영·모선희·원영희·최희경, 『노년사회학』, 학지사, 2009.
- 김원일, 『히로시마의 불꽃』, 문학과지성사, 2000.
- 김은정, 「질병의 의미를 통한 노년소설 연구-김원일의 『슬픈 시간의 기억』을 중심으로」, 『국제어문』 제77집, 국제어문학회, 2018, pp.327-354.
- 류종렬, 「한국 현대 노년소설 연구사」, 『한국문학논총』 제50집, 한국문학회, 2008, pp.501-536.
- 마사 누스바움, 임현경 역, 『타인에 대한 연민』, 알에이치코리아, 2020.
- _____, 조계원 역, 『혐오와 수치심-인간다움을 파괴하는 감정들』, 서울, 2015.
- 문정화·김수진·성기욱, 「코로나19 두려움과 영향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32집 1호,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21, pp.285-397.
-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노년인문학센터, 『인문학자, 노년을 성찰하다』, 푸른사상, 2012.
- 박재인, 「문학치료학 서사이론의 발전 과정에 대한 고찰」, 『인문학연구』 제42집,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0, pp.7-42.
- 슬람미스 사하르 외 6인, 안병직 역, 팻 테인 편, 『노년의 역사』, 글항아리, 2012.
- 아서 클라인만·비나 다스 외, 안종설 역, 『사회적 고통』, 그린비, 2002.
- 이지성, 「코로나19 시대, N포 세대의 ‘두려움’과 ‘혐오’에 대한 윤리적 과제」, 『기독교사회윤리』 제48집,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2020, pp.107-133.
- 전홍남, 『한국 현대 노년소설 연구』, 집문당, 2011.
- 장 아메리, 김희상 역, 『늙어감에 대하여-저항과 체념 사이에서』, 돌베개, 2014.
- 지그문트 바우만, 정일준 역, 『레트로토피아: 실패한 낙원의 귀환』, 아르테, 2018.

최명숙, 『21세기에 만난 한국 노년소설 연구』, 푸른사상, 2014.

페니 베이커, 김종환 외 역, 『털어놓기와 건강』, 학지사, 1999.

프리모 레비, 이소영 역, 『가라앉은 자와 구조된 자』, 돌베개, 2014.

하비 케이, 오인영 역, 『과거의 힘-역사의식, 기억과 상상력』, 삼인, 2004.

Abstract

The Narrative Aspects and Healing Effects of Old Age Novels

- Focusing on Kim Won-il's 『The Memory of Sad Time』 -

Lee, Soo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narrative aspects and healing effects of Kim Won-il's old age novel, 『The Memory of Sad Time』. 『The Memory of Sad Time』 is a series of novels consisting of four pieces: 『What Am I』, 『I Know Myself』, 『I Am Afraid』, 『I Didn't Exist』. The focalizers and main characters, Mrs. Han, Lady Chojeong, Sir Yun, and Mr. Kim, are living in Girowon, a private nursing home, and spending their senescence together. Each of them is facing the moment of death recalling past memories they have.

This work reveals philosophical recognition on death and life, meta-cognitive speculation, and human existence and desire from the perspective of its narrative structure and discourse. The affect that people in senescence show such as loneliness, depression, anger, and sadness comes to be expressed as pathological symptoms, for instance, dementia (cognitive impairment) or cerebral infarction. Also, while suffering from their mental and physical pain, they tend to keep thinking about the pain they are in or the aspects of life. From the existential standpoint of a subject and other, the characters are reproduced as the ambivalent beings of compassion and hatred.

The literary curability of old age novels can be found from the memories (records) of old characters who have gone through historical time and the power of insight. Those that have undergone historical hardships, for example, Japanese imperialism or the Korean War, preferentially need Jagyeong (自敬: to realize the absolute value and dignity of one's own character themselves) to heal the trauma. Moreover, when other

generations, too, empathize with the lives of senescence they will also face in the future and communicate with them, communication between generations can be realized, and the social pain of the disaster community can be eliminated as well.

Writer Kim Won-il reproduces the narrative in 『The Memory of Sad Time』 through the otherized life of senescence and ‘the recalling of suppressed memories’. This pandemic era in which we are facing the matters of disease and death unavoidably is when it is more needed to change our recognition on aging, disease, or death than in any other time, and it is also necessary to have new knowledge about that, too. Consequently, old age Novels allowing us to consider how to live are the literature of existence telling stories about death and life as well as extinction and generation and that equipped with ‘curability’ having so much implication to this post-COVID era. In conclusion, we can say that old age novels are the literature contributing to not only those in senescence but the healing of trauma that humans have by turning pain and sadness into a narrative.

Key Words : Kim Won-il, The Memory of Sad Time, Old Age Novels, healing (curability), memory, time, the post-COVID era

이숙

소속 :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전자우편 : dp717@hanmail.net

이 논문은 2021년 5월 23일 투고되어
2021년 6월 18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21년 6월 25일 게재 확정됨.